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시범도로 지정받은바 있는 충청남도——.

“으뜸 충남 우리가 만들자”는 道政口
호가 가르치듯, 보사행정도 “으뜸”입
에 틀림이 없다.

“전염병 없는 도를 만들자”는 보건구호아래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 3년
간을 1건의 전염병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자랑하는 金建培보사국장은 안경테
넘어로 이지적인 눈매가 번득이고 있었다.

『우리道는 전국에서 전무하게 3년간이나 전염병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리하여 중앙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은적도 있지만 우리 보사국 전체직원과 보건
소, 전도민이 일치단결 협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부단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특히 일본뇌염방지
에 최대역점을 두었는데 첫째 도내 돼지 60만두에 대한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중
간숙주 점염원을 철저히 단속, 근본적으로 발붙일곳이 없도록 만든것이지요.

충청남도 보건사회국 국 장 金建培씨

둘째, 전 축사에 대한 소독작업과 하수도 시설의 残留物소독을 실시하고, 셋
째, 영세 노인층에 대한 예방접종의 무료실시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
로는 3~15세 사이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되어있는데 우리도는 16세까지 인
상 접종토록해서 접종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런식으로 노력한 결과 전에 없었던
성과를 거둔것이지요.』

조리있게 설명하는 金建培국장은 모든 功은 오로지 부하들이나 도민들이 열
심히 협력해준 덕으로 안다고 겸손해 한다.

——충남도민을 위한 건강관리, 특히 성인병관리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가지
고 계시는지요?

『현대병인 성인병관리는 어느 시점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관리협회에
서 실시하는 각종 건강검사는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 포어에서도 말하드시 “병든 다음 치료보다 검사받아 예방하자”가 적절한 표
현 같아요. 그리하여 우리 도에서는 健協을 주축으로 한 移動道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奧地의 주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

고자 운영하는것인데, 여기에는 의사 간호원도 탑승 진료를 돕고 있지요.

기타 만성병분야인 결핵, 성병등도 집중적으로 진료토록 해서 환자색출과 투약, 등록을 시켜서 치료시키고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金국장은 엘리뜨국장답게 그의 소신을 뚜렷이 피력한다.

——충남만이 가지는 보건의료분야의 특수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한말씀 해주시지요.

『우리道는 진료혜택을 계층별 圏域化를 試圖했다는게 특징이 있지요.

첫째, 진료권을 1차진료권, 2차진료권, 3차진료권으로 나누어 계층별로 圏域化했습니다.

1차 진료권은 大中小로 나누어 보건지소장을 중심으로 面단위에 3~4개소씩 두어 진료를 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범 보건지소를 두고 지소당 간호원을 3인씩 두어 종합진료가 가능토록 했지요. 2차 진료권은 그 지역의 도립의료원이나 병원을 이용하고 3차 진료권은 대전에 있는 충남대 종합병원이나 순천향병원등 대도시 종합병원을 이용토록 하므로써 의료이동체계를 확립한 것이지요. 이러므로 해서 생기는 장점으로는 첫째, 환자의 도시 집중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둘째, 경제적 손실이 적으며 셋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무질서한 진료체제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 이로 인해서 서민층의 의료혜택이 확대 실시되었다는 점입니다. 평생가야 진료한번 받지 못하는 영세민들에게 이정도만이라도 혜택을 주게 되었다는것은 참으로 의의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힘주어 이야기하는 金국장의 모습에서 충남도 보건행정은 정말 잘 안될 수가 없구나하고 기자는 느끼고 있었다.

——기생충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 대한 지원이나 협조, 또는 건의하고 싶으신 말씀은?

『기생충박멸사업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충의 감염율은 곧 그 나라의 건강의 척도와 비례하니까요.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율이 많이 낮아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인 0%에 이를려면 아직도 꾸준한 驅虫이 필요합니다. 감염율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학생들의 년 2회의 집단검진을 1회로 줄인다거나 하는것은 절대로 안될 소리지요. 再感染의 위험도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道는 오히려 기생충박멸사업을 확대실시해서 “기생충 없는 으뜸 道”를 만들 작정입니다. 하하—』

말씀하는 사이에 억양이 높아지시는 金국장의 열띤 논조에 기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취되는 자신을 발견한다.

『아동들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건강검사를 일제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벽리 보건지소를 찾
은 金建培보사국장
(中央)



요. 어렸을때부터 건강을 체크해서 큰 병을 미연에 방지한다는것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큼니다. 일본등 선진외국에서는 유아기부터 유아심전도 등 건강검사를 실시해서 건강한 2세 국민을 키우기에 온갖 정성을 쏟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또한 우리 도청직원들에게도 1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받도록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체에도 최대한 협조토록해서 건강검사를 권장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로서는 시설확충, 장비보강을 최대한 지원하여 전도민이 행복한 건강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健協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청남도 부지사이신 李炳奈님과 각국장들도 健協 충남지부에서 건강검사를 해서 술선 자기의 건강을 체크했노라고 절절 웃는다.

한가지 에피소드는 건강모범도인 만큼 술선수범을 결의, 금년봄부터 걷기운동을 시작, 관사촌에서 부터 도청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노라고 말하면서 金국장 자신의 신념의 일단을 표현하기도——

——지금까지의 공무원 생활에서 얻은 신념이랄까 소신이 있으시다면?

『保社행정은 즉 人命행정입니다. 우리나라 정책도 70년대나 80년대초에는 물질행정이었으나 지금은 보사행정에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말이지만 보사행정은 잘 돼야 본전치기입니다.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 발전할수록 자주 바뀌어서 행정도 뒤 따라가야하니 밀도 끝도 없지요. 또한 남는것이 없는 행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중한 人命을 다루는 행정이니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또한가지, 농촌의 생활문화수준의 향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의식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고 농촌과 도시의 격차해소가 선결문제 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복지행정이란 국가가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국가의존적 의태심도 버려야할줄 압니다. 즉 종교단체, 가정, 기타 사회단체에서도 다같이 참여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建培국장은 충남 내무국지방과장, 天原군수, 禮山군수, 公州군수등 요직을 거쳐 現보사국장에 취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인 高潤福여사와의 사이에 2男3女. 취미는 정구와 등산이 프로급. 지역 사회운동의 활성화도 주장하고 있는 열성파이기도 하다.